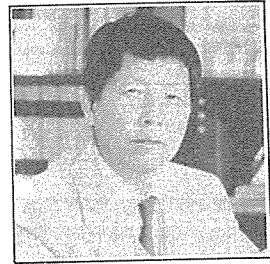


“綜合정보산업 技術基地 역할 확대”

시스템공학센터



成 圭 秀 소장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는 지난 1987년도 한해동안 신뢰와 화합속에 의연하게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망의 1988년과 90년대를 향하여 착실하게 준비한 해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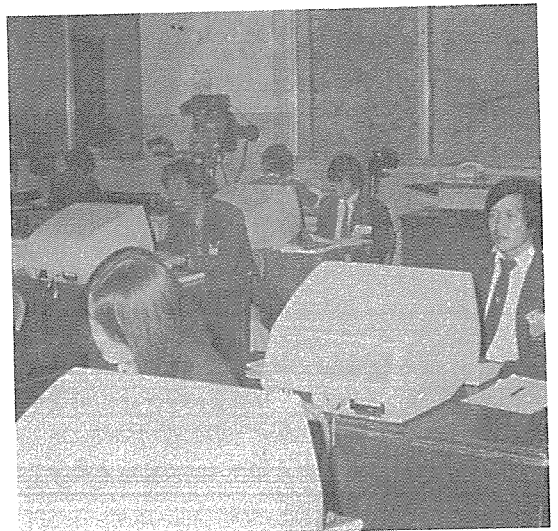
시스템공학센터는 금년의 주요연구과제로 컴퓨터이용기술의 개발, 소프트웨어기술의 공학적 연구, 컴퓨터응용 전문가시스템개발, 각 전문분야의 시스템연구 및 컴퓨터이용 지원, 정보화사회에 기여할 인력양성 및 컴퓨터 마인드 확산, 정보산업 정책개발을 위한 지원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두면서 공동연구와 국제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인 정보산업 기술기지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슈퍼프로젝트 착수

특히 금년에는 우리나라 정보과학기술의 심도를 깊게하고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으

로써의 슈퍼 프로젝트(Software Usability & Productivity Enhancement Research Project)를 착수하는 해이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생산 자동화, 인공지능소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고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여 관련되는 각계의 공감 속에 지난해에 성안된 것이다.

이 계획의 착수년도인 금년은 재정지원이 현실적인 사정상 당초의 야심적인 계획에는 미흡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각오아래 최선을 다하여 소프트웨어기술발전에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면서 1988년도 이후에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육·연구 전산지원체제 확충

한편 국가기간전산망계획 중 교육·연구 전산지원체제의 확충에 관하여도 지난해에 수립된 기본구상과 추진체제, 동원가능한 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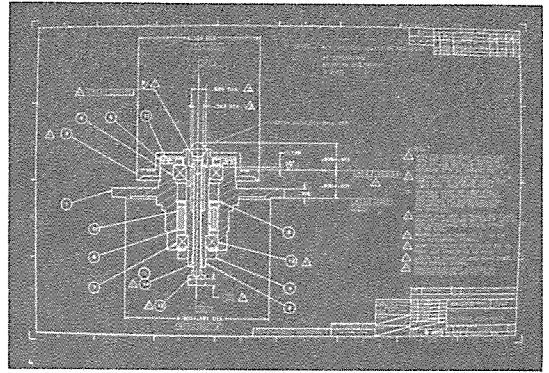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슈퍼컴퓨터의 도입이 금년 하반기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도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슈퍼컴퓨터에 대한 각계 각층의 효율적인 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해에 시스템공학센터가 도입한 Vector연산능력은 교육·연구전산지원체제에 강력한 활력소가 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올림픽 전산시스템의 성공적 운영

특히 1988년은 국가적, 세계적인 대행사인 서울올림픽에 우리가 개발한 전산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세계적인 전산기술능력을 과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시스템공학센터가 가꾸어 온 이론적·실제적 기술 저력의 꽃이며 시스템공학센터의 연구진들이 심혈을 기울인 정열의 소산이 될 것이다.

이 시스템 개발경험을 통해 시스템공학센터의 연구진들을 더욱 노련하게 만들 것이며, 일취월장하는 새 기술을 소화흡수하고 개발하는 소중한



동력으로 승화시켜 다가오는 시대에 대비하는 선도적 시스템엔지니어링의 시범연구가 되도록 하는데 연구를 주력할 방침이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협력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협력사업은 협력사가 지원하고 있는 유사한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에 힘입어, 금년에도 연구개발, 교육·연수, 기초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자원 환경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며, 여건에 따라 이러한 사업의 확대방안도 계속 모색할 방침이다.

◇ 연구시설확충 및 협동연구강화

부족한 연구시설의 확충과 연구개발의 지역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대덕연구동 건설이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보과학기술의 또하나의 핵심기지로 손색이 없도록 지혜와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종합연구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기술의 시스템적 접합이 이루어지는 협동연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는 연구소의 인화단결과 다양한 창의성의 개발 그리고 각계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